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환경부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관실	주대영 과장 / 민재홍 사무관
		생활환경과	02-2110-6811 / 6812
		한국환경공단	임병무 처장 / 한하규 팀장
		환경보건처	032-590-4710 / 3540
		2011. 11.23.(수) / 총 19매	

제2회 우수방음시설 및 정온한 생활환경조성 공모전 수상작 발표

- ◇ 한국도로공사, 조망성 확보 및 친환경소재로 우수방음시설 부문 최우수상 수상
- ◇ 방음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해와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환경부는 ‘제2회 우수방음시설 및 정온한 생활환경조성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출품작 등 총 31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방음시설, 포스터, 에세이 등 3부문에 걸쳐 지난 7월 25일에서 9월 23일까지 실시되었다.
- 소음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미관까지 고려한 우수방음시설을 공모하여 홍보 및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주제로 한 포스터 및 에세이 발굴로 소음저감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시상식은 오는 25일 개최된다.

- 우수방음시설 부문은 39개 출품시설 중 6개 시설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우수상은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강동구 강일동 구간)”이 선정되었다.
 - 이 시설은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하부 식수대 등 녹지시설을 설치하여 방음을 위한 효과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였음이 높게 평가되었다.
- 방음시설 부문을 제외한 일반 공모전은 학생(초등부, 중·고등부)을 대상으로 하는 포스터 부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세이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 포스터 초등부문은 응모작 133편 중 10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소음을 방지하자는 핵심메시지와 포괄적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잘 표현한 “배려없는 소음은 모두에게 고통입니다(파주 심학초등학교 6학년 정서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포스터 중·고등부문은 306편 중 10점을 선정하였으며, 간결한 색상처리와 형태로 귀와 귀마개를 나타내고 도시를 재미있게 표현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소음공해 평생 귀를 막을 순 없습니다(계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다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에세이 부문은 출품작 17편 중 5편을 선정하였으며, 관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소음을 통하여 소통의 정과 환경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땡그랑 한푼에 웃고, 썹그랑 한숨에 울고(조혜경)”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을 우수방음시설 보급 및 공사장, 층간소음 저감 등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수상작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노후화되고 획일적으로 조성된 방음 시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공사장과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원에 대한 이웃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 "앞으로 보다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저감 정책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공모전 개요 1부.
2. 공모전 수상작 1부.

붙임 1 공모전 개요

공모전 개요

- 공모전명 : 제2회 우수방음시설 및 정온한 생활환경조성 공모전
- 추진체계 : 주최(환경부) / 주관(한국환경공단)
- 공모기간 : 2011. 7. 25(월) ~ 9. 23(금)
- 공모분야 : 방음시설, 에세이, 포스터(초등부, 중고등부)

분야별 응모현황

구 분	방음시설	에세이	포스터		비고
			초등부	중고등부	
응모건수	39	17	133	306	

포상계획

구 분		포상내역
방음시설 (6)		< 6개기관 1,000만원 > ○ 최우수상(1) : 환경부장관상, 상금300만원 ○ 우수상(2) : 환경부장관상, 상금200만원 ○ 장려상(3)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100만원
에세이 (5)		< 5명 260만원 > ○ 최우수상(1) : 환경부장관상, 상금100만원 ○ 우수상(2) : 환경부장관상, 상금50만원 ○ 장려상(2)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30만원
포스터 (20)	초등부 (10)	< 10명 115만원 > ○ 최우수상(1) : 환경부장관상, 상금30만원 ○ 우수상(2)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20만원 ○ 장려상(2)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10만원 ○ 입선(5)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품권5만원
	중고등부 (10)	< 10명 175만원 > ○ 최우수상(1) : 환경부장관상, 상금50만원 ○ 우수상(2)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30만원 ○ 장려상(2)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20만원 ○ 입선(5)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품권5만원

붙임 2 공모전 수상작

구분		작품명	수상자	시상내역
방음시설 부문 (6)	최우수상 (1)	서울외곽선 방음벽	한국도로공사 녹색환경처	환경부장관상 상금300만원
	우수상 (2)	방음터널과 방음벽 방음수립의 아름다운 조화	한국철도공사 환경경영처	환경부장관상 상금200만원
		혼합형 방음벽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장려상 (3)	영동고속도로 재활용 방음벽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100만원
		서울시청사 아트웍스 선로변 벽면녹화를 통한 방음벽의 기능 및 경관 향상	삼성물산(주) 서울시청사 건립공사현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포스터 초등부 부문 (10)	최우수상 (1)	배려없는 소음은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경기과주심학초등학교 6학년 정서한	환경부장관상 상금30만원
	우수상 (2)	귀가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서울신대림초등학교 6학년 오다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20만원
		나무울타리를 가꾸어요	강원양구비봉초등학교 2학년 김은웅	
	장려상 (2)	우리를 위해 쉼!	강원양구비봉초등학교 5학년 조민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10만원
		10시입니다. 조용~	인천좌전초등학교 2학년 박수민	
	입선 (5)	큰소리 작은마음 작은소리 큰마음	경기고양행신초등학교 4학년 최세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품권5만원
		소음을 잡자	경기동두천생원초등학교 5학년 유예지	
		이웃과 더불어사는 사회	경기양주온릉초등학교 5학년 이민주	
		줄어드는 생활소음 높아지는 행복지수	부산동원초등학교 4학년 장효림	
		소리를 낮추면 즐거워요	충남홍성홍남초등학교 4학년 김정원	
포스터 중고등부 부문 (10)	최우수상 (1)	소음공해 (평생 귀를 막을순 없습니다)	인천계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다혜	환경부장관상 상금50만원
	우수상 (2)	배려하지 않으면 음악도 소음이 됩니다	경기성남송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예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30만원
		내 가족처럼 배려하는 이웃이 됩시다	대구강동중학교 1학년 조윤희	
	장려상 (2)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강원원주진광고등학교 1학년 유현욱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금20만원
		소음의 속도 계속 올리시겠습니까?	경기포천중학교 2학년 이종호	
	입선 (5)	공사장 소음공해	대구합지고등학교 2학년 김나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상품권5만원
		고호는 왜 귀를 막았는가?	경기안양평촌고등학교 1학년 이다인	
		미래를 위한 가치	대구남여자정보고등학교 2학년 임민지	
		아래집의 절규에 귀기울여주세요	경북칠곡순심여자중학교 1학년 강윤정	
	소음공해로 인한 자연파괴	경기수원태장고등학교 2학년 이정준		
에세이 부문 (5)	최우수상 (1)	‘땡그랑’ 한푼에 웅고 ‘챙그랑’ 한숨에 울고	조혜경	환경부장관상 상금100만원
	우수상 (2)	이런 뇌물은 괜찮아요 사회초년생의 좌충우돌 서울생활	윤상인 김상미	환경부장관상 상금50만원
		오늘의 피해자 내일의 가해자 충간소음 사과 한 박스로 해결했어요	김창식 이종근	

방음시설 부문

○ 최우수상(1개)

작품명	서울외곽선 방음벽	수상자	한국도로공사 녹색환경처
  			
작품 설명	- 투명형 방음판 설계를 통한 주민들의 조망권 확보 및 고속도로 경관 개선 - 하부 식수대 및 배면 녹지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성 증대 - 전면에 담쟁이넝쿨 유도식재용 판넬 사용으로 원활한 색생 및 경관개선 유도		
심사평	방음성능이 우수하고,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날씨 변화 등에 의한 오염에 대한 대응력이 우수하며, 개방성이 높아 경관성 우수함		

○ 우수상(2개)

작품명	방음터널과 방음벽, 방음수림의 아름다운 조화	수상자	한국철도공사 환경경영처
  			
작품 설명	원선의 특성상 잦은 전동차 이동으로 혹여 생길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식으로 시공하고 상부에는 미세먼지 등 환기에 필요한 환기개소 및 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됨. 또한 인도 측면에 방음벽을 목재를 이용한 지역 특성을 살리는 갤러리를 활용하여 방음효과 및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함		
심사평	공동주택시설의 민원해결책으로 적합한 형태로서 방음성능이 탁월함		

작품명	혼합형방음벽(행신역)	수상자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작품 설명	방음림과 더불어 다양한 색상과 무늬로 표현이 가능하며, 표면의 오염이 없고 빗물만으로도 외관 오염인자가 쉽게 제거되고 투명판을 통해 방음림을 보며 자연 속으로 휴식을 떠나는 느낌으로 기차를 타며 낭만과 친환경적인 코레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함. 철도 및 도로변 단독주택 부근에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 방음림을 조성하고 방음림과 어울리게 칼라적용이 가능한 방음벽을 설치하여 도로 및 철도주변 소음을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주변 조경과의 조화를 통해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음.		
심사평	차분한 색채 및 저채도 선정 등 친환경적 배색이 이루어져 디자인이 우수하고 광폭패널을 사용하여 기능성도 우수함		

○ 장려상(3개)

작품명	영동고속도로 51.9k 재활용 방음벽	수상자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작품 설명	전체 설치면적의 20%를 재활용 방음판을 설치하였고, 도심지 통과구간임을 고려, 투명형 및 칼라반사형 등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도로외부 조망 및 미관 확보		
심사평	재활용소재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이며 방음성능이 우수하고, 색채 배색 및 상부 투명처리 등 경관성이 우수함		

작품명	서울시청사 아트웍스	수상자	삼성물산(주) 서울시청사 건립공사현장
	 		
작품 설명	- 시민문화공간(각종 행사 및 집회)를 고려한 웍스설치(무대시설 설치) - 방진, 방음의 기본기능에 추가하여, 도시미관(디자인)을 고려 설치		
심사평	공사장 방음벽의 새로운 스타일 시도이며, 주변 공간과의 조화로움과 다용도 기능을 가진 실용적 측면이 뛰어남		

작품명	선로변 벽면녹화를 통한 방음벽의 기능 및 경관 향상	수상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작품 설명	- 벽면녹화는 저비용으로 녹음효과가 매우 우수함 - 방음벽은 시각적으로도 우세한 수직적 요소로써 선로변과 같이 녹지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 경관향상 및 도시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녹음 수단임		
심사평	방음벽 주위를 녹화하여 자연친화적인 면이 우수하며, 주변 환경 개선 및 방음성능 향상		

□ 포스터 초등부

○ 최우수상(1개)

작품명	배려없는 소음은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수상자	경기과주심학초등학교 정서한
			
작품 설명	배려 없는 소음은 말 그대로 고통을 주는 소음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드릴, 포크레인, 망치소리 등으로 놀라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망치질을 할 때도 조심조심, 드릴을 사용할 때도 살짝살짝 사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심사평	소음을 방지하자는 핵심메시지 외에 포괄적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어린이다운 조형으로 잘 표현하였음		

○ 우수상(2개)

작품명	귀가아파요 마음이아파요.	수상자	서울신대림초등학교 오다솜
			
작품 설명	저의 포스터 공모주제는 공사장 소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공사장 소음을 선택한 것은 제가 요즘 공사장 소음에 대해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저희 앞집에서 헌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집을 부술때 많은 먼지와 듣기 싫은 소음이 매일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평일이건 주말이건 낮이건 밤이건 먼지와 소음 때문에 창을 꼭꼭 닫고 지냈습니다. 문을 닫으면 먼지는 방어가 되지만 소음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음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어린 저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는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소음이지만 소음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이웃은 조금만 이해해준다면 쾌적하고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심사평	포스터의 요건인 주제 전달이 강하고 대각선으로 배열한 구도 및 보색을 적절히 활용한 색 전개가 우수함. 또한 표현 문구도 운율이 있어 전달력이 뛰어남		

작품명	나무울타리를 가꾸어요	수상자	강원양구비봉초등학교 김은중
			
작품 설명	도시의 발달로 자동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가 많아진 만큼 소음과 매연도 심각한 공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의 소음은 도로변 아파트와 생활지역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고장인 양구에서도 요즘 도로가 많이 발달하였지만, 자동차의 소음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자연적인 방음벽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적인 방음벽을 만들면 돈도 많이 들고 자연 경관을 해치게 되는데, 나무를 심어서 방음벽을 만들게 되면 환경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공기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터에 그린 내용처럼 나무울타리를 쌓아서 자연적인 방음벽을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평	대기정화에 중요한 나무를 주제로 소음도 줄이고 나무도 심어 궁극적 자연보호에 대한 메시지와 조형표현이 우수함		

○ 장려상(2개)

작품명	우리를 위해 쉴!	수상자	강원양구비봉초등학교 조민정
			
작품 설명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음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공사장 소음, 층간 소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잊고 생활하는 중에 무심코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소음발생 상황을 안내하고 다양한 상황을 한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결국 이러한 무관심에서 발생한 소음이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쉴!'이라는 표어를 통하여 결국 소음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조용히 생활하는 것은 '나'나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은유하고자 하였다.		
심사평	재미있는 표현 방법으로 포스터라는 한계를 잘 극복하면서도 감각적 조형표출로 주제를 적절히 전달하고 있음		

작품명	10시입니다. 조용~	수상자	인천작전초등학교 박수민
			
작품 설명	아파트 혹은 다세대 형태의 주거 형태에서 작으면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내용. 서로가 조금씩 더 배려하여 층간 소음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내용.		
심사평	자신의 경험 그대로를 솔직하게 포스터에 반영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수함. 메시지가 간단, 명쾌함.		

○ 입선(5개)

작품명	큰소리 작은 마음 작은소리 큰 마음	작품명	소음을 잡자
수상자	경기고양행신초등학교 최세영	수상자	경기동두천생연초등학교 유예지
			

작품명	이웃과 더불어사는 사회
수상자	경기양주은봉초등학교 이민주



작품명	줄어드는 생활소음 높아지는 행복지수
수상자	부산동원초등학교 장효림



작품명	소리를 낮추면 즐거워요
수상자	충남홍성홍남초등학교 김정원



□ 포스터 중 · 고등부

○ 최우수상(1개)

작품명	소음공해(평생 귀를 막을순 없습니다.)	수상자	인천계산여자고등학교 김다혜
			
작품 설명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소음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만큼 모든 생활이 도시화 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하여 귀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귀마개를 그림으로 선택하여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심사평	간결한 색상처리와 형태로 귀와 귀마개를 나타내고 도시를 재미있게 표현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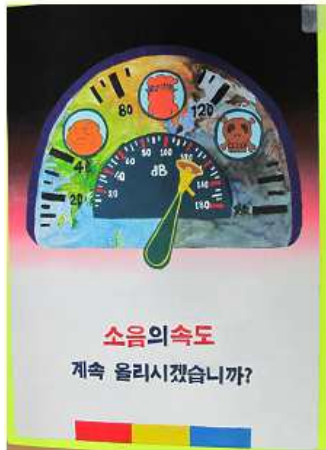
○ 우수상(2개)

작품명	배려하지 않으면 음악도 소음이 됩니다.	수상자	경기성남송신여자고등학교 김예지
			
작품 설명	이 포스터는 아무리 듣기 좋은 음악도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연주 한다면 듣기 싫은 소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졌으며, 이 포스터에 나타나고 있는 첼로는 소음의 주체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귀와 첼로를 따로 그리니까 한 공간 안에서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의 살구색과 첼로의 갈색을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사용해 귀와 첼로를 결합하여 일체감을 주었습니다.		
심사평	악기(발신자)와 귀(수신자)를 대도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면서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이 잘 표현됨		

작품명	내 가족처럼 배려하는 이웃이 됩시다	수상자	대구장동중학교 조윤희
			
작품 설명	소음이란 단순히 말하자면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하루의 피곤함을 덜어줘야 할 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소음덩어리, 스트레스의 근원지가 되어, 끊임 없이 크고 작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살인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음공해의 피해라하면 스트레스증가(심리적인 영향)나 아직까지 밝혀 진 것은 없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층 입장에서는 작은 소음만 들어도 신경질이 나게 되고, 경고를 받은 윗층 입장에서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자기 집 안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서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조금만 너그럽게 이웃끼리 배려한다면 그러면 민감하게 들리던 소음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다보면, 따뜻한 이웃사촌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심사평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할머니의 마음을 빗대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접근이 두드러짐		

○ 장려상(2개)

작품명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수상자	강원원주진광고등학교 유현옥
			
작품 설명	21C 글로벌 시대 문명이 발달하여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와 개성을 중시하는 시민사회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점점 결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워 이웃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청소년은 소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음에 주의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교통소음 등을 줄여 정온한 생활환경을 이루어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을 높이고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합니다.		
심사평	소음이 극에 달하면 소리지르고 싶은 마음을 극단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음. 바탕색, 인물, 카피 등의 색채 대비 효과가 좋음		

작품명	소음의 속도 계속 올리시겠습니까?	수상자	경기포천중학교 이종호
			
작품 설명	이 포스터에 있는 그림은 소음의 단위 dB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고통 받고 지구가 점점 썩어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아이디어는 자동차의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 계기판의 바늘이 올라가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래서 소음의 크기가 높아지는 것과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관련지어서 구상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소음이 크면 클수록 바늘이 점점 더 올라가고 그로인해 사람들은 피로워하는 모습을 숫자와 함께 표현 한 것이다. 계기판의 배경도 지구로 하여 속도가 올라갈수록 지구도 함께 힘들어한다는 것을 표현했다. 현대 사회는 차는 많지만 계속 생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도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꾸만 늘어가는 자동차들이 달리면서 내는 교통소음들은 생활속에서 커다란 불편을 주는 원인이다. 아파트의 층간소음도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큰소리로 떠들면서 내는 소음들은 생활을 방해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심각한 생활 속 소음공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위의 그림 설명처럼 표현하면 운전자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교통 소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이 가지는 모든 불편을 잘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그리게 되었다.		
심사평	지구를 형상화한 계기판에 속도와 소음을 결합시킨 것의 발상이 뛰어나		

○ 입선(5개)

작품명	공사장 소음공해	작품명	고흐는 왜 귀를 막았는가?
수상자	대구합지고등학교 김나현	수상자	경기안양평촌고등학교 이다인
			

작품명	미래를 위한 가치
수상자	대구구남여자정보고등학교 임민지



작품명	아랫집의 절규에 귀기우려주세요.
수상자	경북칠곡순심여자중학교 강운경



작품명	소음공해로 인한 자연파괴
수상자	경기수원태장고등학교 이성준



에세이 부문

○ 최우수상(1개)

작품명	‘땡그랑’ 한 푼에 웃고, ‘쨍그랑’ 한숨에 울고	수상자	경기안산시 조혜경
<요약> 이사한 집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음 중 가장 힘들었던 고철상 고철 던지는 소리를 참고 견디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절충안을 찾아 이웃들과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땡그랑’ 한 푼은 듣기 좋은 소리라 웃고, ‘쨍그랑’ 고철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라 울게 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반성하며 누군가에게는 쨍그랑 고철 소리가 삶의 목표이자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화해의 악수를 함으로서 함께 사는 이웃이 되어간다. 세월이 흘러 소음의 원인이자 불편함을 주었던 고철상에 아이와 재활용품을 팔러 가서 환경교육과 금융교육의 체험학습을 시키기도 하며, 관점의 차이를 좁히면 소음의 문제도 쉽게 풀려 나갈 수 있고 배려와 존중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작품 설명	같은 췌소리지만 땡그랑 동전소리에는 사람이 웃게 되고, 쨍그랑 시끄러운 고철소리에는 울게 되는 인간의 관점에 따라 소음의 문제도, 해결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에 에피소드들로 구성함.		
심사평	소음을 듣는 각도에 따라 느낌을 승화한 표현이 환경을 중요시하게 하도록 표현한 작품		

○ 우수상(2개)

작품명	이런 뇌물은 괜찮아요	수상자	대전광역시 윤상인
<요약>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혼 후 7년만에 어렵게 가진 아기를 유산하게 되는 고통을 맛보고도 결국엔 아무런 사과조차 받지 못한채 해결하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만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이 나도 피해를 끼치는 가해자일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많은걸 이해해주신 좋은 이웃을 만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 다른 사람은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나름 소박한 뇌물을 써가며 이웃과 소통해나가는 저의 일상을 글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아이아빠가 큰 수술을 하게 되어 갑자기 돌이 갓 지난 젖먹이 아기를 떼어놓고 병원에 가 있으면서 친정부모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많이 울어 주변에서 항의를 받게 되어 처음엔 그게 서운하고 속상했는데, 그것역시 대화로 풀다보니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좀 더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품 설명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통을 겪다가 이후에 좋은 이웃들을 만나 소통을 통한 이해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됨.		
심사평	소음환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필자의 노력이 엿보임		

작품명	사회초년생의 좌충우돌 서울생활	수상자	서울특별시 김상미
<요약> 서울에 취업을 하게 된 나는 조용하던 촌에서 벗어나 서울 생활을 시작한다. 나는 거주를 위해서 집에서 독립을 하여 서울에 원룸을 계약한다. 서울생활의 설렘과 바쁘게 살아가는 서울의 모습에 대한 동경과 달리 서울에는 다양한 소음들이 뒤엉킨 곳으로 나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는 곳이라는 곳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특히 순진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계약한 원룸은 1층의 공간 활용을 위해 나의 방 옆에 계단을 위치해 놓고도 이에 대비한 방음시설이 없었고 옆집의 화장실은 나의 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이사 첫날밤이 되어서야 깨닫는다. 방음에 취약해 있던 곳이라서 나는 항상 밤잠을 설쳤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계단 옆에 메모를 붙여보기도 하고 주인내외에 항의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좌절을 겪게 된다. 친절하기만 했던 계약당시와 달리 주인내외는 냉정하게 날 대하고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나의 메모를 볼 여유가 없는지 누구 하나 조심해 주지를 않았다. 결국 계속된 노력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도어 클로저의 설치와 계단카펫 설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작품 설명	서울은 바쁘게 살아가는 탓인지 인구가 많은 탓인지 소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원룸 주인은 사람이 아닌 돈만 맞이하려는 것인지 세입자가 느낄 소음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이 에세이는 처음 서울 생활을 하게 된 사회초년생이 겪은 소음에 대한 경험을 담았다.		
심사평	사회 초년생의 주거 생활 어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현실적 소음해결 방법을 제시한 작품임		

○ 장려상(2개)

작품명	오늘의 피해자 내일의 가해자	수상자	경기수원시 김창식
<요약> 아랫집 입장에서 윗집에서 주는 층간소음의 피해로 고통스러워 윗집에 항의를 하였지만 아랫집이 이사를 오고 같은 이유로 본인에게 항의가 들어오는 상황에 윗집에서 조치한 층간소음의 해결책을 공유하고 본인에게 들어온 항의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했던 본인이 직접 겪은 실화의 내용 임			
작품 설명	층간소음은 내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자 함.		
심사평	소음의 피해와 가해를 인생의 행로에 비추어 잘 표현함		

작품명	충간소음 사과 한 박스로 해결했어요	수상자	전북전주시 이종근
<요약>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폭행, 심지어 살인사건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뉴스거리가 안 될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흔히 이야기하는 층간 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한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테지만, 쿵쿵 시끄러운 악기소리, 화장실 물소리, 텔레비전의 소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는 물론 의자가 바닥에서 ‘끼익’ 끄는 소리까지 모두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이맘때쯤 지금의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좁은 아파트를 벗어나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 마음까지 너그러워지는 듯 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 ‘아침 7시, 오후 12시, 밤 9시’ 매일 세 번씩 빼놓지 않고 청소기를 밀어대는 윗집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얼마나 청소를 깨끗히 하는 지, 한 번 돌리면 1시간은 가뿐히 넘어가는 윗집의 청소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그 후 2개월 정도 지나 윗집과 친해지면서, 아픈 아이 때문에 깨끗히 청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연을 듣게 되었다. 그제서야 마음을 조금 편히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해도 대화로 푸는 것이 제일이다’ 라고 말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가정이 윗집에 이사를 오면서 다시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갔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쿵광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윗집과 여러 차례 싸우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소음으로 가족 모두가 다시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다. 시도 때도 없이 뛰어다니는 위층의 발소리와 오전에 들리는 아래층 음악소리에 신경이 예민해져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야 겠다는 심정이다. 그러나 내가 윗집에 사과 한 박스(애플데이 10월 24일)를 선물하면서 층간소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예로부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사촌이나 다를 바 없이 가깝다 해서 이웃사촌이라 불렀는데, 그래서인지 이웃과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잘 지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작품 설명	지난해에 새로 아파트로 이사를 온 후 층간 소음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		
심사평	이웃사촌을 만들어서 상호 이해하는 방식으로 소음 문제를 해결한 정겨운 작품으로 시를 곁들인 에세이가 장점임		